

# 역시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켈카, 5번째 'V'

### PGA 챔피언십만 3승째... LIV, 첫 메이저 우승 메이저대회 5승 이상은 역대 20명 뿐인 대기록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켈카(미국)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챔피언십에서 세 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후원을 받는 LIV 골프에서 뛰는 선수로는 처음 메이저대회 정상에 올랐다.

켈카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오크힐 컨트리클럽(파70·7380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총상금 1750만 달러·약 227억5000만 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71타를 기록, 공동 2위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스키티 셰플러(미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15만 달러(약 41억8000만 원)다.

이번 우승으로 켈카는 PGA 투어 통산 9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지난해 6월 LIV 골프 프로 출신 켈카가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1년 2월 피닉스오픈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켈카는 메이저 대회에서만 5승째를 올렸고, 그중 PGA 챔피언십에서 3승(2018·2019·2023년)을 거둬 강한 면모를 재확인했다. 나머지 메이저 2승은 2017년과 2018년 US오픈에서 기록했다. 메이저대회 5승 이상은 켈카를 포함해 역대 20명만 지닌 대기록이다.

LIV 골프가 출범한 이후 PGA 투어와

대립각을 드러내는 가운데 켈카의 이번 우승은 지난해 출범한 LIV 골프 소속 선수로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최초의 사례다. 켈카가 ‘메이저 사냥꾼’ 답게 최초의 주인공이 됐다.

한 타 차 선두로 호블란과 같은 조에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켈카는 초반 2~4번 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리며 지난달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의 아쉬움을 떨쳐내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6~7번 홀 연속 보기로 전반 한 타를 줄이는 데 그쳤고, 호블란도 전반 한 타를 줄이며 켈카의 한 타 차 리드가 이어졌다.

켈카는 12번 홀(파4)에서 3m가량의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두 타 차로 벌였으나 다음 홀(파5)에서 호블란이 버디로 응수하며 접전이 이어졌다. 켈카는 13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다음 샷이 홀을 3m 정도 지나가며 위기를 맞았지만 어렵게 파를 지켜내 선두를 지켰다.

여기에 두 조 앞에서 경이한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14번 홀(파4)까지 4타를 줄이며 켈카에게 두 타 차로 따라붙어 우승의 향방을 쉽게 짐작 수 없었다. 하지만 켈카와 호블란이 14번 홀에서 나란히 버디를 잡아내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졌고, 16번 홀(파4)에서 켈카가 웨지를 박았다.

호블란이 티샷을 병커에 빠뜨린 뒤 고전하다 네 번째 샷 만에 그린에 공을 올리며



브룩스 켈카가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의 우승 트로피인 워너메이커를 들어올리며 활짝 웃고 있다.

게티이미지 AFP-연합뉴스

더블보기를 적어냈고, 켈카는 홀 1m 남짓 한 곳에 붙이는 완벽한 두 번째 샷으로 버디를 잡아내 순식간에 4타 차로 만들며 승기를 굳혔다. 호블란은 18번 홀(파4) 버디로 셰플러와 공동 2위를 만들며 마친 것에 만족해야 했다.

LIV 소속인 브라이슨 디샬보(미국)는 캠 데이비스(호주), 커트 기타야마(미국)와 공동 4위(3언더파 277타)에 올랐고,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7위(2언더파 278타)로 마쳤다.

투어 선수가 아닌 클럽 프로 마이클 블록(미국)은 공동 15위(1오버파 281타)에 오르는 선전으로 내년 PGA 챔피언십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클럽 프로에게 배분되는 출전권을 통해 이번 대회에 나선 블록은 매길로이와 최종 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하던 15번 홀(파3·151야드)에서 7번 아이언 티샷이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가는 출신원으로 경경사를 누렸다.

한국 선수 중에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이경훈은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묶어

한 타를 줄이며 공동 29위(5오버파 285타)에 올랐다.

한편, 켈카는 이날 발표된 남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44위에서 13위로 수직상승했다. 2021년 10월 이후 밀려났던 세계 톱10 진입도 바라보게 됐다.

셰플러는 온 람(스페인)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람에게 1위를 내주고 2위로 밀린 이후 42일 만이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김하성, 4경기 연속 안타 MLB 통산 99번째 득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중인 김하성이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김하성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2023 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1득점을 추가했다. 시즌 타율은 0.236(144타수 34안타)를 유지했다.

김하성은 1회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3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안타는 팀이 6-0으로 앞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나왔다.

이닝의 선두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Nick Piepoli의 몸쪽 직구를 공략해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다음 타순의 투그레드 오도어는 2루타로 김하성을 홈까지 불러들였다. 김하성의 올 시즌 14번째 득점이자 2021년 MLB에 데뷔한 이래 99번째 득점이다.

김하성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타격을 마감했다. 샌디에이고는 보스턴에 7-0으로 승리해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났다.

샌디에이고 선발 마이어와 카는 6이닝 5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5승(1패)을 수확했다.

보스턴에서 뛰는 일본인 타자 요시다 마사타카는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활약해 타율을 0.303으로 끌어 올렸다. 보스턴은 4연승을 마감했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김하성이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USA투데이-연합뉴스

## 프로야구, LG vs SSG 선두 놓고 '맞대결'

### 인천 문학구장서 3연전... 삼성 오승환 500세이브에 주목



프로야구 공동 선두(26승 14패 1무)를 달리고 있는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가 주중 인천 문학구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3연전을 벌인다. 지난달 25~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LG가 2승 1

패로 워닝시리즈를 쟁겼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 두 팀의 3연전에서 무승부나 우천 취소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최근 2경기 연속 나란히 점 유했던 1위 자리의 주인이 가려진다.

SSG는 지난 주말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다. 3연전 가운데 1차전은 먼저 내졌지만, 김광

현과 커크 맥카티의 연속 호투로 2차전과 3차전을 잡고 롯데를 선두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지난주 4승 1패 1무를 기록한 LG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번 시즌 팀 타율 0.290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LG 타선은 지난 주말 한화 이글스와 3연전에서 다소 잠잠했지만, 경기당 1점씩만 내준 마운드의 힘으로 연승을 이어갔다.

SSG와 LG의 3연전은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다. 팀 타율 1위를 달리는 LG가 '창'

이라면 팀 평균자책점 3.28로 리그 1위인 SSG 마운드는 '방패'라 할 수 있다. 앞선 두 팀의 3연전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 감각을 뽐냈던 선수는 LG 외야수 박해민이다.

이번 시즌 홈런 3개를 때린 박해민은 SSG와 3연전에서만 2차례 답장을 넘겼고, 11타수 6안타(타율 0.545)를 집중했다. 오지환(9타수 5안타, 2루타 4개)과 홍창기(13타수 7안타)도 SSG 마운드를 괴롭혔다.

SSG 타선에서는 최정의 화력에 기대를

건다. 최정은 최근 5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에 성공하고 4경기에서 홈런 4개를 몰아쳤다. LG와 이번 시즌 3경기에서도 11타수 4안타, 타율 0.364에 홈런 1개를 터트리며 좋은 감각을 뽐냈다.

리그 타격 1위(0.346) 기예르모 에레디아도 LG를 상대로 타율 0.357(14타수 5안타)로 좋은 성적을 냈다.

한편, 지난주 3경기 연속 무실점에 1승 1세이브를 챙긴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은 두산과 주중 3연전(잠실)과 kt와 주말 3연전(대구)을 치른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WANNA RISE?

###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 Ray SX-ZERO



###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